

‘09년 상반기 브라질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황

- ‘09년 7월 브라질 자동차협회(ANFAVEA)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2009년 상반기 중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13.6% 감소한 146만대였으며,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% 늘어난 145만대를 기록했다고 발표
- 지난 6월의 브라질 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월 대비 8.4% 증가한 283.9천대를 기록했지만, 전년 동월 대비 8.2% 감소한 실적을 시현
- ‘09년 6월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21.5%가 증가한 300.2천대였으며, 전년 동월대비 17.2%나 증가한 수치

<표1> 2009년 1~6월 중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황

(단위: 천대, ():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)

구 분	2008년	2009. 5.	2009. 6.	2009. 1~6.
자동차 생산	3,220.5	261.8	283.9	1,460.0 (△13.6%)
자동차 판매	2,820.4	247.0	300.2	1,450.0 (3.0%)

자료 : 브라질자동차협회(Anfavea)

- 브라질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‘09년 상반기 중 브라질 국내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증가한 것은 브라질 정부의 자동차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공산품세 인하조치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

- 이를 통해 자동차 판매가격이 평균 약 5~7% 정도 낮아졌으며, 판매량이 증가세를 계속하자 당초 1사분기 중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감세조치를 3사분기 까지 연장하는 한편, 감세대상을 트럭과 버스, 오토바이 등으로 확대 시행
 -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'09년 자동차 판매량이 세계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
- '09년 상반기 브라질 국산차량의 판매는 전년동기간 대비 0.7% 감소한 반면, 수입차량의 판매는 전년 동기간 대비 19.5% 증가한 209.3천대 판매를 기록
- 상대적으로 수입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자동차 수요가 최근 헤알화 약세 전환 및 감세조치로 인한 수입자동차의 판매가격 하락, 불황타개를 위한 수입자동차 메이커들의 대대적인 할인판매전략 등이 수입차량 판매실적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짐.

<표2> 브라질 국산차량 및 수입차량의 판매현황

(단위: 천대, ():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)

구 분	2008년	2009. 4.	2009. 5.	2009. 6.	2009. 1~6.
브라질산	2,445.2 (11.8%)	203.3 (△11.5%)	213.6 (0.75%)	259.9 (16.4%)	1,240.5 (0.7%)
수입산	375.2 (35.4%)	31.1 (△0.01%)	33.3 (11.0%)	40.2 (22.6%)	209.3 (19.5%)
전체	2,820.4 (14.5%)	234.4 (△10.3%)	246.9 (2.0%)	300.1 (17.2%)	1,449.8 (3.0%)

자료 : 브라질자동차협회(Anfavea)

- 한편, '09년 상반기 중 브라질 산 자동차의 수출은 총 33억 6천 달러로 전년동기간 대비 51.1% 감소하였으며, 차량대수는 총 199천대를 수출하여 전년동기간 수출물량 381.2천대에 대비하여 47.8% 감소

<표3> 자동차 수출 현황

(단위 : 천대, %, ():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)

2008년	2009. 4.	2009. 5.	2009. 6.	2009. 1~6.
734.6	35.0	38.5	38.5	86.1
(△6.9%)	(△48.0%)	(△36.8%)	(△47.0%)	(△47.8%)

- 브라질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폭스바겐 등 일부 자동차 업체의 경우 신규인원 충원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전년의 고용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.
- '09년 6월말 현재 자동차산업의 고용인력 119.5천명으로 '08년 6월 기준 127.6천명 대비 약 6.3% 감소한 인원이며, '09년 5월 120.4천명 대비 약 0.7% 감소한 수준임.

<표4> 자동차 산업 종업원 고용 현황

(단위 : 천명, ():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)

2007. 12	2008.12	2009. 4.	2009. 5.	2009. 6.
120.3	126.8	120.7	120.4	119.5
(20.0%)	(5.4%)	(△0.04%)	(△0.05%)	(△0.07%)

- '09년 상반기 중 브라질 정부에서 추진한 자동차에 대한 공산품세 인하조치는 판매량 증가로 이어져 당초 기대했던 국내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- 또한 국제경기 둔화에 따라 해외수출이 타격을 받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해외수출보다는 국내 판매 촉진전략을 강화했다는 점도 브라질 자동차 판매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.

- 아울러,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자동차 판매호조 현상은 브라질이 내수중심시장이라는 점을 확인시킴은 물론 과거와 달리 국제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화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일본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브라질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
< 사옹파울루 사무소 제공 >